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중심으로 -

김 지 영·류 현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01년 8월 현재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5억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에 이미 전체 인구의 과반수에 이르는 2,400만 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7~19세의 이용률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88.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한국 인터넷정보센터, 2002).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의 효율을 높이며, 다양한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음란물의 접촉, 통신과 게임에 대한 지나친 몰입 등은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대한 부정적 측면을 보이게 된다(조춘범, 2001).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1996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Goldberg가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록 학자마다 자신이 만든 진단 준거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자를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개인으로 하여금 학업적·직업적·관계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송명준, 허유정, 이은정, 권정혜, 2001).

인터넷 중독률은 조사 시점이나 대상자에 따라 1.2%에서 19.2%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라민오, 2001; 이주연, 2000; 조춘범, 2001; 황수정, 2000; Anderson, 2001; Greenfield,

2000; Yang, 2001), 정보통신부에서 2001년에 국내 사이버 중독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4.8%가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중고등학생이 6.6%, 초등학생이 4.1%, 일반 성인이 1.6%로 인터넷 중독률을 보였는데,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보다 더 높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주로 성인위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며, 더욱이 아동은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일생에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절제한 몰입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이선애, 2001).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는 인터넷 자체의 특성으로서 익명성과 상호작용성, 개방성, 접근가능성을 들 수 있으며, 개인적 특성으로는 우울성과 충동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자체의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므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해 봄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강박증, 신체화,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옥순, 홍혜영, 강형분, 1998; 임효정, 1999; 윤재희, 1998; Young & Rodgers, 1998).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주요어 : 인터넷 중독, 가정환경, 학교생활 적응

1)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김지영 E-mail: kimjy@seonam.ac.kr)

투고일: 2003년 3월 27일 심사완료일: 2003년 4월 14일

학령기 아동의 환경적 요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가정환경은 아동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제공해주며,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화의 기본교육을 제공한다(Schor, 1995). 아동 성장발달의 기초는 대부분 가정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학령기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적응된 양상을 보인다.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생들이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당면 문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백영광, 2001). 학교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자신의 생활영역으로 학습의 장이다. 따라서 친구와의 만남으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며 사회화되어 가는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경험될 필요가 있다(김화식, 1985).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학령기 아동의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정도와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한다.
- 인터넷 중독과 가정환경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가정환경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5개 구에서 각 1개교씩 편의표집하여 각 학교에서 5학년 2학급, 6학년 2학급씩을 무작위로 표집하였으며 총 20개 학급 6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2002년 9월 9일에서 14일까지 학교장의 허락을 얻고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들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익명성을 보장한 후 연구를 수락한 아동들에게 직접 작성토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15-30분이 소요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53부를 제외한 64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 인터넷 중독 척도(Internet Addiction Scale)

Young(1998)이 제작한 인터넷 중독 척도(IAS)를 윤재희(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대인관계성향의 변화, 학업에서의 장애여부, 통제 절제력의 여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4점,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윤재희(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Young(1998)은 20점에서 39점까지는 평균적인 온라인 이용자로서 자신이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비중독자(nonaddiction)이고, 40점에서 69점까지는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는 중간자(intermediate)로, 70점 이상인 경우는 인터넷 사용으로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독자(addiction)라고 하였다.

· 가정환경

본 연구에서는 유재승(2000)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대해서 가정 분위기가 8문항, 부모-자녀 관계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좋음을 의미한다. 유재승(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상필(1990)이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5문항의 4점 척도로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 담임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그렇다’ 4점에서, ‘대체로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필(199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 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가정환경은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χ^2 -test로, 학교생활 적응과 가정환경은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및 가정환경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실태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중독군이 10.0%(64명), 중간군이 58.0%(371명), 비중독군이 32.0%(205명)였다.

<표 1>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n=640)

인터넷 중독 정도	점수범위	n(%)
중독군	100 ~ 70	64(10.0)
중간군	69 ~ 40	371(58.0)
비중독군	39 ~ 20	205(32.0)

또한 인터넷 중독 척도 20문항 각각에 대한 평균점수는 <표 2>와 같은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게임)을 하게 된다.’와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의 항목은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성별과 학업성적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중독군이 16.5%, 중간군이 66.5%, 비중독군이 17.1%였고, 여학생의 경우 중독군이 3.5%, 중간군이 49.4%, 비중독군이 47.2%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0.32, p=.001$). 학업성적은 학업성적이 좋은 편에서 중독군이 6.3%, 못하는 편에서 중독군이 28.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5.237,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학년과 학업성적, 생활수준,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등이었다. 5학년이 6학년보다 가족환경과 학교적응수준이 높았으며($t=3.06, p=.002, t=4.23, p=.000$), 학업성적이 좋은 군에서($F=9.17, p=.000, F=42.82, p=.000$), 생활수준이 높은 군에서($F=28.88, p=.000, F=36.99, p=.000$),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군에서($F=4.71, p=.003, F=6.65, p=.000$),

<표 2> 인터넷 중독 척도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인터넷 중독 척도	Mean±SD
1.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게임)을 하게 된다.	3.5±1.21
2. 인터넷(게임)을 하느라 숙제를 못 한 적이 있다.	2.3±1.36
3.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는 것보다 인터넷(게임)을 하는 것이 더 즐겁다.	2.1±1.24
4.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	3.0±1.44
5. 인터넷(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을 듣는다.	2.5±1.35
6. 인터넷(게임)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은 적이 있다.	2.4±1.23
7.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먼저 인터넷(게임)부터 하게 된다.	2.5±1.38
8. 인터넷(게임) 때문에 학교 공부가 소홀해지고 성적이 떨어졌다.	2.2±1.20
9. 사람들이 내게 주로 하는 인터넷(게임)이 몇 가지인지 물었을 때 사실보다 더 줄여서 말한 적이 있다.	1.8±1.14
10. 인터넷(게임)에 대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평소의 괴로운 생각을 피한 적이 있다.	2.5±1.41
11. 인터넷(게임)을 할 시간만 기다리게 된다.	2.2±1.31
12. 인터넷(게임)이 없는 세상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2.6±1.39
13. 인터넷(게임)을 하는 도중 방해받았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 적이 있다.	2.5±1.39
14. 밤새 인터넷(게임)을 하느라 늦게 잠이 든 적이 있다.	1.9±1.30
15. 인터넷(게임)을 안 할 때도 게임에 대한 생각으로 딱 차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2.3±1.35
16. 인터넷(게임)을 할 때 ‘조금만 더 해야지’하면서 계속 하게 된다.	2.8±1.37
17. 인터넷(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적이 있다.	2.4±1.39
18. 인터넷(게임)을 얼마나 오래 동안 했는지를 남에게 숨긴 적이 있다.	2.0±1.24
19.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인터넷(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	2.1±1.28
20. 우울하거나 예민할 때 인터넷(게임)을 하면 괜찮아진다.	2.6±1.45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N=640)

구 분	중독군		중간군		비중독군		계		χ^2	p
	n	(%)	n	(%)	n	(%)	n	(%)		
성별	남	53 (16.5)	214 (66.5)	55 (17.1)	322 (50.3)	80.322			.001	
	여	11 (3.5)	157 (49.4)	150 (47.2)	318 (49.7)					
학년	5학년	25 (8.1)	173 (56.2)	110 (35.7)	308 (48.1)	4.952			.084	
	6학년	39 (11.8)	198 (59.6)	95 (28.6)	332 (51.9)					
학업성적	상	8 (6.3)	67 (52.8)	52 (40.9)	128 (20.0)	25.237			.001	
	중	43 (9.3)	283 (61.0)	138 (29.7)	467 (73.0)					
	하	13 (28.9)	19 (42.2)	13 (28.9)	45 (7.0)					
경제수준	상	14 (8.4)	87 (52.4)	65 (39.2)	168 (26.3)	5.414			.247	
	중	48 (10.5)	275 (60.0)	135 (29.5)	464 (72.6)					
	하	2 (12.5)	9 (56.2)	5 (31.3)	7 (1.1)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 (8.1)	20 (54.1)	14 (37.8)	37 (7.4)	1.042			.903	
	고졸	16 (8.5)	111 (59.0)	61 (32.5)	188 (37.4)					
	대졸이상	26 (9.3)	152 (54.7)	100 (36.0)	278 (55.2)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4 (6.7)	37 (61.7)	19 (31.7)	60 (12.0)	1.372			.849	
	고졸	20 (8.7)	130 (56.5)	80 (34.8)	230 (46.1)					
	대졸이상	21 (10.0)	113 (54.1)	75 (35.9)	209 (41.9)					
어머니 직업	무	35 (11.2)	177 (56.7)	101 (32.1)	313 (48.9)	1.026			.599	
	유	29 (8.9)	193 (59.2)	105 (31.9)	327 (51.1)					

* 무응답 제외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군에서(F=7.65, p=.000, F=7.78, p=.000) 가정환경과 학교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가정환경 점수를 보면 중독군(67.3), 중간군(72.8), 비중독군(77.6)의 순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5.09, p=.0001),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점수 또한 중독군(59.9), 중간군(63.7), 비중독군(70.2)의 순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4.46, p=.0001).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

구 분	가정환경		t or F (p)	duncan	학교적응		t or F (p)	duncan	
	M±SD				M±SD				
성별	남	73.4±11.81	0.90 (.367)		65.4±11.59	0.02 (.982)			
	여	74.2±11.93			65.4±11.59				
학년	5학년	75.2±11.07	3.06 (.002)		67.4±11.49	4.23 (.000)			
	6학년	72.5±11.51			63.5±11.37				
학업성적	상	76.7±13.19	9.17 (.000)	A	72.6±10.81	42.82 (.000)		A	
	중	73.5±10.66			B			64.2±10.94	B
	하	68.6±11.40			C			57.2±10.81	C
생활수준	상	79.3±11.76	28.88 (.000)	A	71.5±11.33	36.99 (.000)		A	
	중	71.9±10.48			B			63.0±10.87	B
	하	69.0±16.81			B			70.7± 7.39	A
아버지학력*	대졸이상	75.7±12.28	6.06 (.010)	A	67.9±11.61	10.68 (.001)		A	
	고졸	73.2±10.58			B			64.8±11.51	B
	중졸이하	71.2±12.09			B			62.3± 7.78	B
어머니학력*	대졸이상	76.8±12.02	7.65 (.000)	A	68.7±11.57	7.78 (.000)		A	
	고졸	72.6±11.03			B			64.4±11.61	B
	중졸이하	71.6±12.01			B			64.4± 8.35	B
어머니직업	무	74.4±11.40	1.177 (.2394)		65.2±12.02	0.3956 (.9620)			
	유	73.3±11.36			65.5±11.17				

* 무응답 제외

<표 5>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

인터넷 중독정도	가정환경		F (p)	학교적응		F (p)
	(M±SD)	duncan		(M±SD)	duncan	
중독군	67.3±10.95	a	25.09 (.0001)	59.9±10.43	a	34.46 (.0001)
중간군	72.8±10.91	b		63.7±10.75	b	
비중독군	77.6±11.08	c		70.2±11.80	c	

인터넷중독,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터넷 중독점수와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 점수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점수와 학교적응점수가 낮았다($r=-0.342, p=0.0001, r=-0.32435, p=0.0001$). 또한 가정환경과 학교적응 점수는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 점수가 높았다($r=0.52121, p=0.0001$).

<표 6> 인터넷중독,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터넷 중독 r(p)	가족 환경 r(p)
가정환경	-0.32 (.0001)	
학교적응	-0.35 (.0001)	0.52 (.0001)

논 의

인터넷 사용의 급증과 함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인터넷 사용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중독실태와 그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환경적 개념에서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보면 전체의 10.0%가 중독군, 58.0%가 중간군, 32.0%가 비중독군이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을 파악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웅장(2002)의 연구와 조춘범의 연구에서는 중독군과 중간군의 비율이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높은 인터넷의 이용률이 높은 중독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최근 몇몇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보다 초등학생들의 중독률이 더 높게 나타나 갈수록 컴퓨터를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간호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척도 20문항 각각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

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게임)을 하게 된다.’와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의 항목의 평균이 3점 이상이 나와, 대부분의 아동이 인터넷에 필요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지도하고,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주는 어른들의 관리가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는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실과 가상공간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아이가 인터넷 중독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이시형 등(2000), 서주현(2001), 안석(2000), Anderson(2001), Yang(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이유가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정보검색보다는 게임, 오락활동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학생이 중독성향이 강한 게임과 오락활동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자연히 커졌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학업성적에 따라 중독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업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동이 인터넷 중독의 부적응적 행동을 보인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지나친 인터넷 몰입의 결과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체가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학년과 학업성적, 생활수준, 아버지, 어머니학력이였다.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이 일치한 것은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5학년과 6학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 연구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학교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적이 높은 군에서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높았던 것은 학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이러한 학생은 수업 장면이나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대한 태도에서 고립되거나 제외되고 결국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다는 손희준(1988)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학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허형, 황인창, 황인록(1974)과 김은혜(1987)의 연구에서 아버지 교육수준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관련 변인이 학령기 아동에게 가장 관계가

많은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 수록 사전예방지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란 짐작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가정환경을 보면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가정환경이 좋지 못함을 볼 수 있었다. 황수정(2000)은 자신을 둘러싼 지지원의 사회적 지지가 적다고 지각하는 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가족지지가 약할수록 중독적 사용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안석(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가정이라는 환경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환경은 아동들에게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을 통해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독아동에게 가족, 친구,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명백한 중독 성향을 보이기 전에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보면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재수의 연구에서 중독군은 수업태도면에서 주의집중력이 낮은 편이며, 성격은 내향적이고 학교행사 참여도가 낮게 나왔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춘범(2001)의 연구에서는 학교의 규칙이나 제도 및 입시제도에 적응을 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학령기나 청소년기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변수로 학교생활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와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점수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조춘범, 박재황의 연구와 일치함을 보였다.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정도는 낮았으며($r=-0.32, p=.0001, r=-0.35, p=.0001$)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점수는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환경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점수도 높았다($r=0.52, p=.0001$).

최근 들어 초등학교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아동이 올바른 인터넷 이용과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가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며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차원에서 지지적인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알아보고 인터넷 중독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640명을 대상으로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도구는 Young이 개발하고 윤재희(1998)가 번안한 인터넷 중독척도와 유재승(2000)이 개발한 가정환경 측정도구, 이상필(1990)이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est,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중독군이 10.0%, 중간군이 58.0%, 비중독군이 32.0%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chi^2=80.322, p=.001$), 학업성적($\chi^2=25.23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을 분석한 결과 학년($t=3.06, p=.002, t=4.23, p=.000$)과 학업성적($F=9.17, p=.000, F=42.82, p=.000$), 생활수준($F=28.88, p=.000, F=36.99, p=.000$), 아버지학력($F=4.71, p=.003, F=6.65, p=.000$), 어머니학력($F=7.65, p=.000, F=7.78, p=.000$) 등이었다.
-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가정환경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5.09, p=.0001$).
-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4.46, p=.0001$).
-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와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 점수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정도는 낮았으며($r=-0.32, p=.0001, r=-0.35, p=.0001$)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점수는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여 가정환경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점수도 높았다($r=0.52, p=.0001$).

이상의 연구결과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심각한 편이었으며, 중독정도가 심할수록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인터넷 중독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및 이와 관련된 변인

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인터넷 중독 예방과 관리차원에서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생활적응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옥순, 홍혜영, 강형분 (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I: 통신중독장.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웅장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자아 존중감 및 정신증상 차원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1987). 가정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의 학년별 학업 성취.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수 (2000).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PC통신 중독 실태에 행동특성.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식 (1985). 아동의 환경 및 학습자 요인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라민오 (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광 (2001). 초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준 (1988). 고등학생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준, 허유정, 이은정, 권정혜 (2001). 인터넷 중독: 중독적 특성, 중독의 결과 및 중독자의 하위유형.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5.
- 안 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승 (2000). 출석 불량학생과 정상학생의 가정환경, 자아정체감 및 학교생활 적응 비교.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 특성의 차이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2001).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요인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7(1), 57-83.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주연 (2000). 일반 청소년과 통신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자아 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14(2), 91-110.
- 임효정 (2000). 사이버 의존 집단과 비 의존 집단의 심리특성 연구 - 대인예민성과 우울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통신부 (2001).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허형, 황인창, 황인록 (1974). 가정환경의 제 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 행동과학 연구소.
- 황수정 (2000).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K. J. (2001).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무 exploratory study. J Am Coll Health, 50(1), 21-26.
- Greenfield, D. N. (2000). The net effect: Internet addiction and compulsive internet use. <http://www.virtual-addiction.com/neteffect.htm>
- Schor, L. E. (1995). The influence of families on child health family behaviors and child outcomes.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42(1), 16-25.
- Yang, C. K. (2001). Socio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computers to excess. Acta Psychologist, 44(2), 200-208.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김현수 역. (2000). 인터넷 중독증. 서울: 나눔의 집.
- Young, K. S., & Rodgers, R. C. (1998).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ril.

Relationships among School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Kim, Ji-Young-Ryu, Hyun-Sook¹⁾

1)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eona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chool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and to explicit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ternet addict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Metho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40 students from 5th and 6th year children of five elementary schools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SAS program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χ^2 -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In the degree of the internet addiction were 10.0% of addiction group, 58.0% of intermediate group, and 32.0% of nonaddiction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environment score($F=25.09$, $p=.0001$) and school adjustment score($F=34.46$, $p=.0001$) regarding internet addiction degree.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et addiction score, family environment score and school adjustment score revealed a significant inverse correlation($r=-0.32$, $p=.0001$, $r=-0.35$, $p=.0001$).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score and school adjustment score revealed a significant correlation($r=0.52$, $p=.0001$). **Conclusion:** The degree of school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has been found to be very high and correlated to the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Therefo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Family environment, School adjustm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i-Young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eonam University
720, Kwang-chi-dong, Namwon city, Chonbuk, 590-711, Korea
Tel: +82-63-620-0125 Fax: +82-63-620-0305 E-mail: kimjy@seonam.ac.kr